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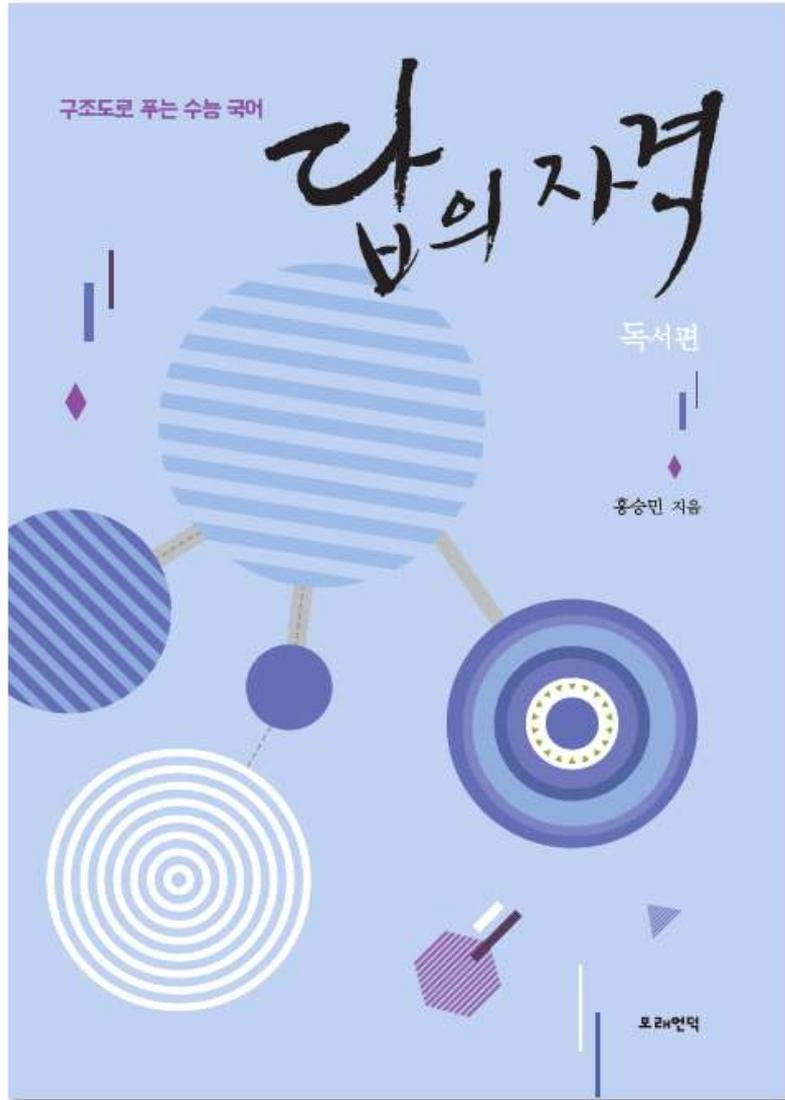
구조도로 푸는 수능 국어

답의 자격

독서편

홍승민 지음

모래언덕





넷째 마당.

문장(미시) 구조도



미시 구조도

이번 장에서 배울 미시구조도는 구조도 독해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 장까지 충분히 익히면 1, 2학년 교육청 모의고사는 충분히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최근 어려워지고 있는 수능을 대비해 학력평가 모의고사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미시구조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필자만의 독해법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위권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습니다. 자, 다시 출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독서 영역에서 난이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변별력을 내기 위해 만든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법은 다음 장인 ‘답의 자격’에서 다루겠습니다.

수능의 난이도를 올리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제시문 자체의 난이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고교 3년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누구든지 읽을 수 있는 수준의 제시문을 내야 하는 겁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으로 문제를 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교육청 모의고사의 경우 원문을 가져오는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가끔 너무 어려운 제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력평가 모의고사의 경우 출제자가 제시문을 직접 씁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최근 출제되는 난이도 있는 제시문은 글 전체가 어렵다기보다 특정 문단이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잘 읽히는 듯하다가 중간쯤 갑자기 어렵게 쓰인 한 문단이나 몇 개의 문장에 의해 독해의 흐름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문단마다 난이도를 달리하면 독해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특

정 문단이나 한두 문장이 글 전체의 독해를 좌우하는 관건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확한 문장 독해입니다. 문장 자체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글이 잘 안 읽히는 게 당연합니다.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독해뿐만 아니라 정확한 문장 독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것이 미시구조도입니다. 문장구조도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문장을 읽는 힘!!! 미시구조도!!!!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문장성분은 무엇일까요? 주어와 서술어죠. 그렇다면 주어와 서술어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서술어!!!라 하겠습니다. 주어도 서술어의 주체가 되기에 주어인 것입니다. 실질적인 정보의 핵심은 서술어에 있다는 의미지요.

문장을 보면 보통 주어나 목적어에 체언이 배치됩니다. 그리고 그 체언들의 관계를 서술어가 규정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정보의 주체에 해당하는 덩어리들이 있고 그 덩어리들의 관계가 실질적인 정보에 해당합니다.

자 다음 글을 봅시다. 먼저 글을 정독해 보세요.

< 예시문제 ③ > 2011년 수능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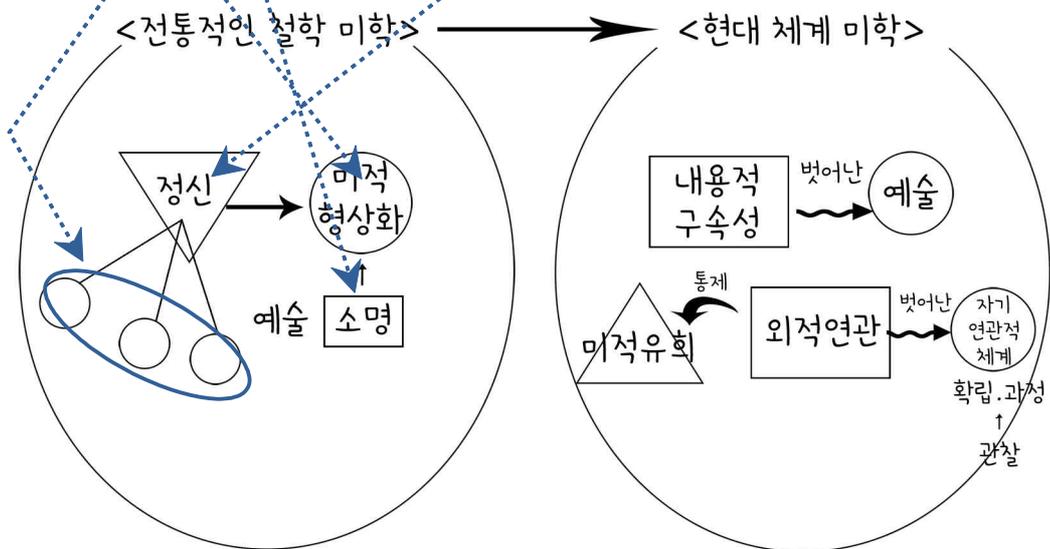
이해가 잘 되나요? 이 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지식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다음 미시구조도의 과정을 거쳐 봅시다.

국어는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주어란 서술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서술어가 어찌되면 선행되어야 하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술되는 어떤 정보가 머무는

덩어리가 주어입니다. 이 덩어리는 반드시 주어일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어나 다른 문장 성분이 그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덩어리에 해당하는 단어에 ○, □, △, ▽ 등의 기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 덩어리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서술어는 → 화살표로 정리합니다.

< 예시문제 > 2011년 수능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 반면 현대의 체계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다.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



어떤가요? 별다른 부연 설명이나 배경지식 없이도 글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나요? 실제로 이 미시(문장)구조도를 사용하면 정확한 문장 독해가 가능해집니다.

최근, 난이도가 높은 제시문의 경우 이처럼 문장을 꼬아서 핵심을 감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문장 독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 말하는 답의 자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독해력입니다.

그럼 이제 예시 문제를 풀어 봅시다.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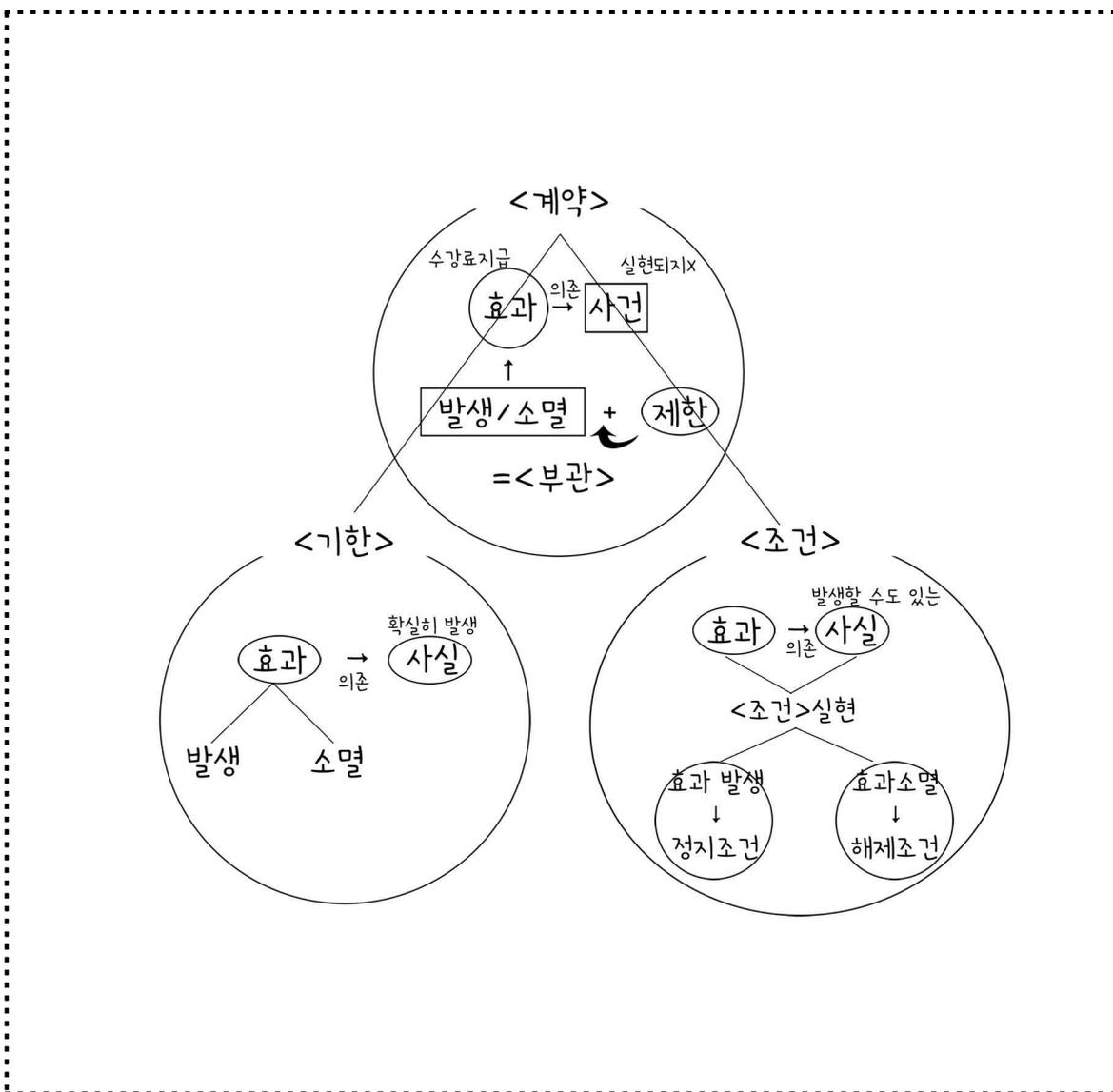
Empty dashed box for student response.



예시문제 ①

2016년 수능 구조도 예시답안

우선, 이 사례의 계약이 수강료 지급이라는 효과를,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계약이라는 점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을 기한이라 한다. 반면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조건이다. 그리고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라 부른다. 민사 소송에서 판결에 대하여 상소, 곧 항소나 상고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아서 사안이 종결되든가, 그 사안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선고되든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다룰 길이 없어진다. 이때 판결은 확정되었다고 한다. 확정 판결에 대하여는 ‘기판력(既判力)’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은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이다.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지만,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제가 실재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 언급해야 하며, 그것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따질 수 있다. 만약 어떤 명제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 언급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며, 그것에 대해 참, 거짓을 따질 수 없다. 따라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enclosed in a dashed border.



예시문제 ③

설명이론 (16년 9월 B형)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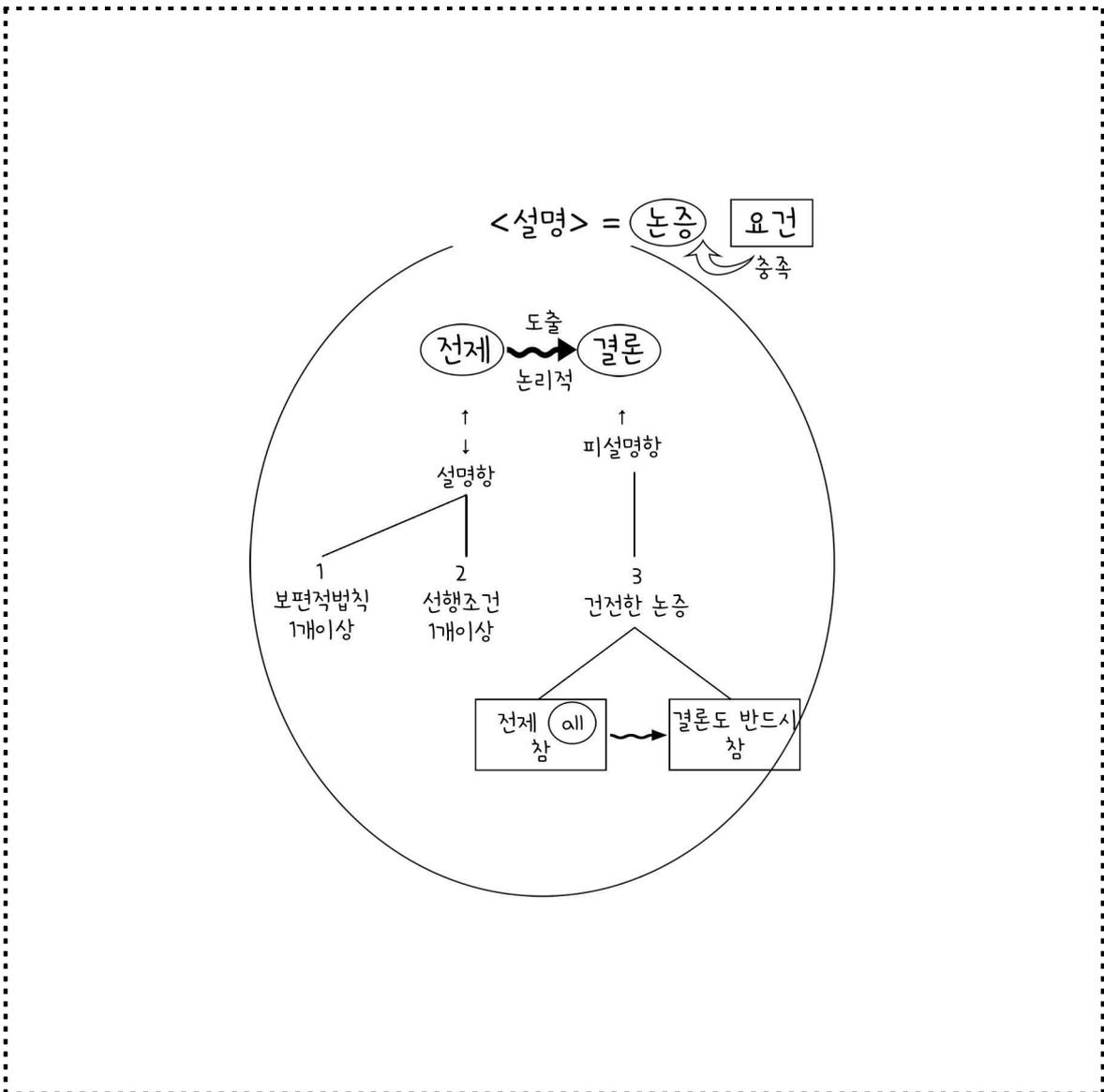
Blank area for writing the answer, enclosed in a dashed border.



예시문제 ③

설명이론 (16년 9월 B형) 구조도 예시답안

처음으로 체계적인 설명 이론을 제시한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띤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 험펠에 따르면 설명은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설명항에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처럼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둘째,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와 같은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 셋째,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다.





예시문제 ④

도덕실재론(16년 6월 A)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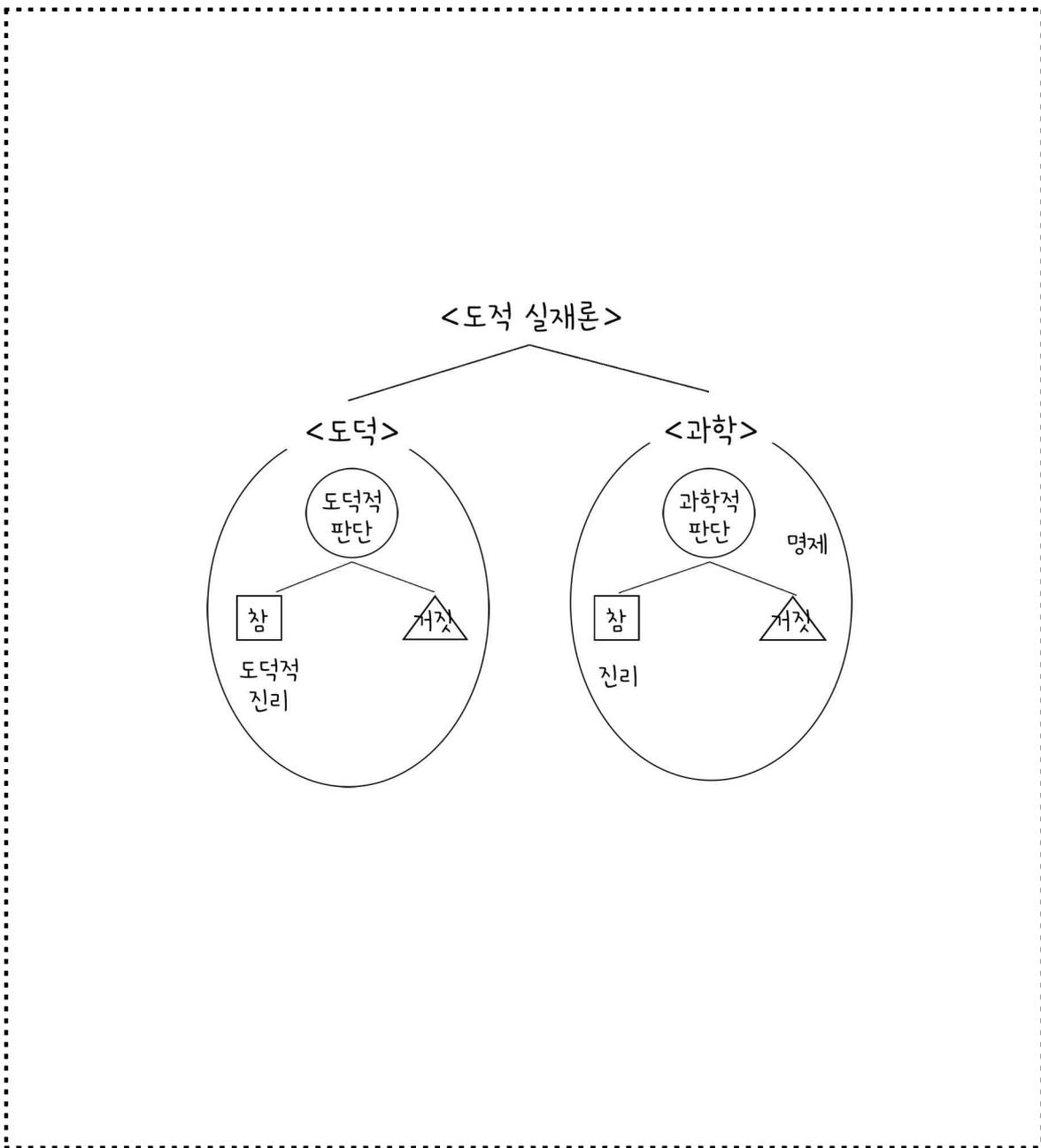
Empty dashed box for answer or notes.



예시문제 ④

도덕실재론(16년 6월 A) 구조도 예시답안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예시문제 ⑤

취미 칸트(16년 B)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이다. 모든 판단은 ‘S는 P이다.’라는 명제 형식으로 환원되는데, 그 가운데 이성이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하는 ‘규정적 판단’에서는 술어 P가 보편적 개념에 따라 객관적 성질로서 주어 S에 부여된다. 이와 유사하게 취미 판단에서도 P, 즉 ‘미’는 ‘추’가 마치 객관적 성질인 것처럼 S에 부여된다. 하지만 실제로 취미 판단에서의 P는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한다. 또한 규정적 판단은 명제의 객관적이고 보편인 타당성을 지향하므로 하나의 개별 대상뿐 아니라 여러 대상이나 모든 대상을 묶은 하나의 단위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취미 판단은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즉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는 것이다.

Blank area for answer or notes, enclosed in a dashed border.



예시문제 ⑥

항암제(16년 9월 B형)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A large empty rectangular area with a dashed border, intended for a student's answer.



예시문제 ⑥

항암제(16년 9월 B형) 구조도 예시답안

신호 전달 억제제는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한다. 신호 전달 경로는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신호 전달 억제제는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만성골수성백혈병(CML)의 치료제인 이마티닙이 그 예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형태의 효소인 Bcr-Abl단백질을 만들어 낸다. 이 효소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킨다. 이러한 원리에 착안하여 Bcr-Abl 단백질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이마티닙이 개발되었다.

